

보도시점 2024. 12. 27.(금) 06:00
< 12.27.(금) 석간 >

배포 2024. 12. 26.(목)

국내 유통산업, 인공지능(AI)으로 경쟁력 새판 짬다!

- 산업부, 「유통산업 AI 활용전략」 발표
- 3년 내 유통 AI 활용률 30% 달성, 대표프로젝트 100건 창출 목표
- 유통기업 재고비용 20%, 소비자 배송시간 10%, 유통기업·소비자 배송비용 20% 감소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27.(금) 오전 10시 대한상의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유통산업 AI 활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지난 5월 「AI 시대의 新 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분야별 활용전략 중 5번째이다.

* ①AI자율제조(5.8) ②디자인(7.9) ③R&D(10.17), ④에너지(12.3) ⑤유통(12.27)

유통산업은 복잡한 밸류체인과 높은 인력투입 비중으로 AI를 활용한 효율화·최적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하여 혁신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Andrew Ng) 미국 스탠퍼드大 교수도 “미래 유통 혁신에 AI는 필수이며, AI를 통해 기존의 검색 기반 유통이 대화형 유통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I 활용을 통한 유통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업계 등 유통산업 전문가와 함께 작업반을 구성·운영하였고, 동 작업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번 전략을 통해 향후 3년내 국내 유통기업 AI 활용률을 30%(현재 3% 미만)로 제고하여 유통기업 재고비용 20% 감소, 소비자 배송시간 10% 단축, 총배송비용 20% 감소와 함께 가품방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은 상품화, 마케팅, 매장관리, 물류·배송, 고객경험 등 유통 5대 분야별 AI를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①유통산업 AI 활용률 제고, ②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③유통산업 AI 활용 제도·기반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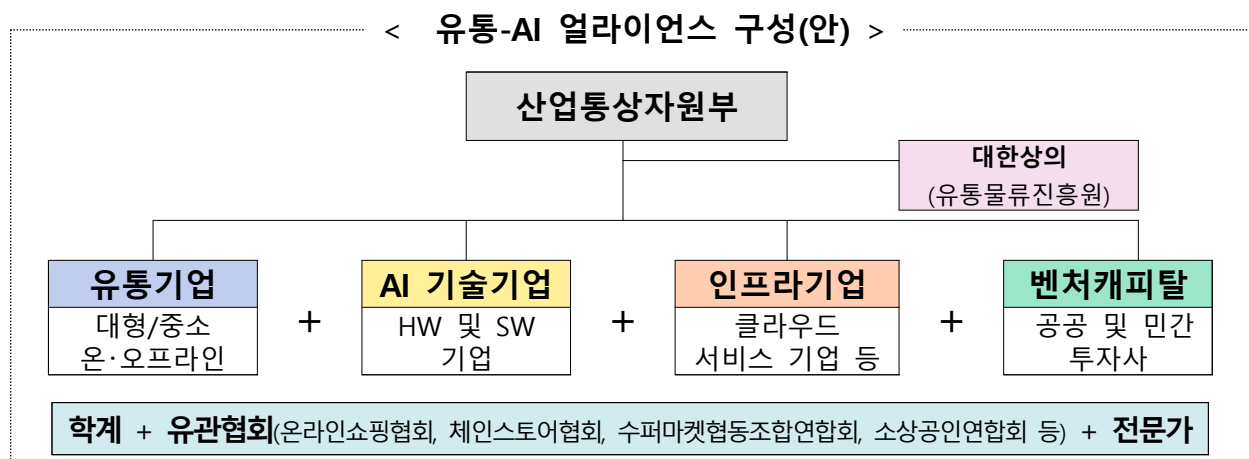
첫째, 현재 3% 미만의 유통산업 AI 활용률을 30% 이상으로 제고한다. 유통기업들이 AI 활용 분야, 비용, 시스템 구축 기간 및 필요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유통기업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유통기업 대상 AI 활용 컨설팅 제공, 20건* 내외의 AI 활용 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통 분야 AI 활용 대표 프로젝트 100건을 창출하여 유통산업에서 AI 활용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유통에 적용 가능한 5대 분야별 세부 기능을 감안하여 20건 선정 계획

또한, AI 활용을 위해 디지털전환이 시급한 중소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포항·창원·부천 등에 기 구축된 풀필먼트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 기기를 확산하는 한편 동 풀필먼트센터를 AI 자동화 풀필먼트센터로의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Fulfillment System(Center) : 제품 보관, 주문 처리 및 포장, 배송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시설)

둘째,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통기업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AI 기술기업들은 유통기업들이 어떠한 AI 서비스를 원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업, AI 기술기업, 인프라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유통-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AI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관협력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유통 분야 AI 기술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 등에 투자하는 1,000 억원대 규모의 유통분야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CVC 펀드('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조성 계획) 등을 활용하여 유통 AI 기술기업의 창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기업들의 유통기업과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유통 AI 개발인력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 유통관련 석·박사 대상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구직자 및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AI 활용 역량을 갖춘 유통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셋째, 유통산업 AI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을 조성한다.

AI·디지털 활용의 필수재인 유통데이터 확충을 위해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현재 4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 범위를 기존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까지 확대한다.



또한, 입점업체의 AI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발생가능한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는 유통산업 AI 활용 지재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및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유통 플랫폼 기업의 국내진출 등으로 성장 정체와 경쟁 격화에 직면한 우리 유통산업은 AI를 활용한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AI 활용전략을 통해 유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 편의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견기업정책관 온라인유통TF팀	책임자	팀 장	윤영범 (044-203-4359)
		담당자	사무관	정원우 (044-203-4376)

참고 1

「유통산업 AI 활용전략」 비전 및 전략목표



참고 2

유통산업 주요 부문별 AI 활용 영역

01 상품화

수요예측 및 지능형 재고관리

Kurly

마켓컬리

미래 주문 예측해 상품 발주 → 상품 폐기율 1% 미만

02 마케팅

개인화 추천 및 디지털 마케팅 자동화

NAVER

네이버

검색이력·구매패턴을 분석해 상품 추천 (AITEMS)

03 매장관리

실시간 매장 모니터링 통한 재고관리 등

THE HYUNDAI

현대백화점

고객 동선 분석, 인기상품 진열 위치 최적화

04 물류·배송

운송경로, 차량 배치 등 물류 최적화

coupang

쿠팡

AI 기반 최첨단 물류기술(AGV 등)로 작업량 65% 자동화

05 고객경험

고객 문의 처리 자동화 등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가상인간 '루시'를 통해 실시간 답변, 아이템 착용 모습 제공

② AI 상품추천 기술 AITEMS

AITEMS의 개인화 추천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합니다



④ 쿠팡 물류센터 AGV

